제 5 장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외교

제 1 절 재외국민의 안전과 동포의 권익 보호 증진

1. 재외국민보호 시스템 강화

외교통상부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영사시스템을 구축, 강화하여 왔다. 2005년부터 전세계 외교부 최초로 영사콜센터를 개설하여 연중무휴로 여권, 해외이주, 해외 사건 · 사고 관련 민원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 대형사고 및 테러 피해 지원을 위해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파견하고 있다. 또한, 휴대폰 국제 로밍서비스를 이용하여 해외 위급상황 문자서비스(SMS)도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사건 ·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전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해외여행객 1,200만명 시대와 함께 우리 국민의 해외 활동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양질의 영사서비스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대와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러한 변화된 영사환경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자 기존의 제도를 개선 · 보완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외국민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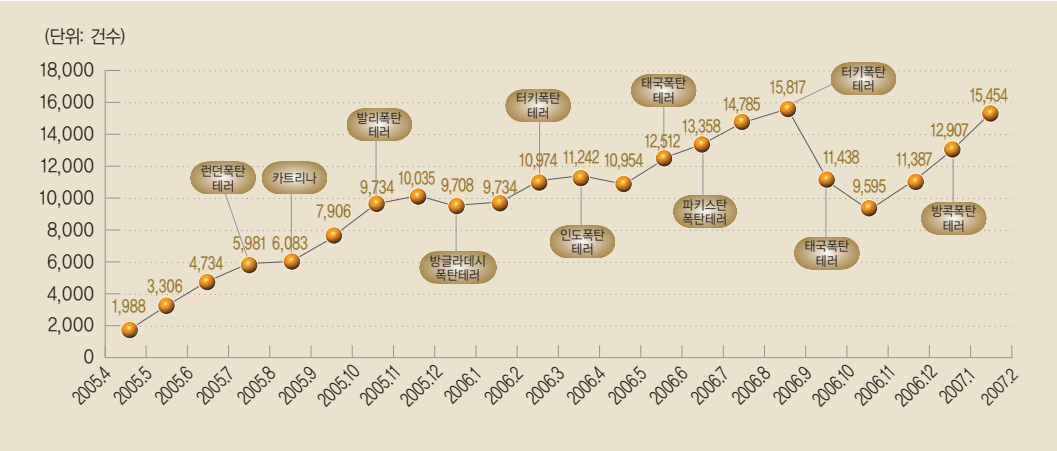
1) '영사콜센터', 외교부의 대표적인 혁신브랜드로 성장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는 1년간의 임시운영을 거쳐 2005년 4월 1일 정식 개소하였다. 개소 당시 전화 상담건수가 월 2천여 건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월평균 1만 2천여건에 이르고 있다. 또한, 동 콜센터를 외교부의 대표적인 혁신브랜드로 지정 · 육성한 결과, 2006년 한국능률협회 서비스품질지수(KSQI) 조사 결과 정부행정부처 콜센터 부분 1위, 공공기관 콜센터 부분에서 2위를 차지하였고, '4대 유망 혁신 브랜드' 및 '참여정부 국민체감형 10대 혁신사례'

로도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영사콜센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외교통상부 종합민원센터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는 전문 인력 확충 및 홍보강화 등을 통해 영사콜센터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영사콜센터 인입콜수



2) 신속 해외송금 제도

2007년 6월 1일부터 '신속해외송금' 제도가 도입 · 시행됨으로써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 및 분실, 기타 뜻밖의 사고로 일시적 궁핍상황에 처하여 현금이 필요하게 될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또는 지인)이 외교부 영사콜센터 국내 은행구좌에 필요 경비를 입금하면, 현지 우리 공관으로부터 곧바로 현금을 지원받게 된다.

기존의 은행 송금제도를 이용하던 때에는 고액의 송금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송금을 받기까지 최소한 2~3일간 기다려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 왔으나, 이 제도 시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여행객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실제상황 발생시 영사콜센터로 도움 요청)

3) 신속대응팀 활약

외교통상부는 2006년 팔레스타인 KBS 특파원 피랍(3월), 소말리아 동원호 선원 피랍(4월), 나이지리아 대우직원 피랍(6월) 및 2007년 중국해상 골든로즈호 침몰사건(5월),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사고(6월), 아프카니스탄 한국인 피랍사건(7월) 등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테러, 사건 · 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대응팀을 파견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한 석방과 구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한 · 미 FTA 반대 원정시위(6월, 9월, 12월), 독일 월드컵(6월), 아프간 평화행사(8월) 등 대규모 해외 행사시 사건 · 사고 예방 차원의 활동도 성공적으로 전개하였다.

신속대응팀 파견실적

파견계기	개 요
KBS 특파원 피랍(2006.3.15~18)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피랍, 이틀후 석방
동원호 피랍(2006.4.4~8.8)	소말리아 해역서 조업중 무장단체에 의해 피랍, 117일후 석방
한 · 미 FTA 제3차 협상(2006.6.5~11)	원정시위대비 예방적 재외국민보호
나이지리아 대우건설 직원 피랍(2006.6.7~9)	나이지리아 한국인 5명 무장단체에 의해 피랍, 이틀후 석방
독일월드컵(2006.6.16~25)	예방적 재외국민보호 활동
아프간 2006 평화행사(2006.8.1~8)	예방적 재외국민보호 활동
한 · 미 FTA 제4차 협상(2006.9.6~9)	원정시위대비 예방적 재외국민보호 활동
도하아시안게임(2006.12.1~15)	선수단 및 응원단 예방적 재외국민보호 활동
한 · 미 FTA 제5차 협상(2006.12.8~12)	원정시위대비 예방적 재외국민보호 활동

4) 해외 위급상황 문자서비스 확대

외교통상부가 2005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SKT 국제 로밍서비스를 이용한 해외위급문자서비스는 첨단 IT를 활용한 세계 최초의 영사서비스로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외교부는 국내 협력업체를 확대, 2007년 1월부터 KTF 국제 로밍서비스 이용자에게도 동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연평균 220만명 이상, 100여개국을 대상으로 해외위급상황 문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2006년 해외 위급상황 문자서비스(SMS) 발송 현황

발송일	대상국	내 용
2006.1.3	예멘	예멘에서 외국인 납치보고서 빈발, 신변 안전 유의
2006.1.16	인도	1/26 국경일 전후 테러공격 우려, 신변 안전 유의
2006.4.3	이탈리아	4/9~4/10 총선 전후 테러공격 우려, 신변 안전 유의
2006.5.27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지진발생, 신변 안전 유의
2006.7.12	인도	뭄바이 연쇄 폭탄테러, 신변안전 유의, 본인안전 가족에게 연락 요망
2006.7.18	인도네시아	자바 서부 쓰나미 발생, 신변안전 유의, 본인안전 가족에게 연락 요망
2006.7.24	인도네시아	슬라이웨시섬 쓰나미 경보, 신변안전 유의, 본인안전 가족에게 연락 요망
2006.7.31	아프간 외 16개국	아프간 치안 악화, 여행 절대 자제 요망
2006.8.10	영국	항공기 테러 첩보, 신변안전 유의
2006.9.6	이스라엘 외 2개국	이집트 시나이반도 테러가능성 유의
2006.9.20	태국	태국 쿠데타 발생, 신변안전 유의
2006.9.29	필리핀	필리핀 태풍 발생, 신변안전 유의
2006.11.15	일본	일본 북해도 지진 관련 신변안전 유의

5) 영사협력원 제도 도입

외교통상부는 재외국민보호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공관 미상주 지역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영사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영사협력원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7년 3월 1일자로 시행된 이 제도는 우리 공관이 없는 19개국 및 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83개 지역에 총 102명의 영사협력원을 위촉하여, 해외 사건 · 사고 발생시 영사의 지시에 따라 초동대응 등의 영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로 중국내 22개(무한, 하얼빈, 계림, 곤명 등), 아주 21개(발리, 세부 등), 구주 18개(바르셀로나, 에딘버러, 밀라노 등), 미주 26개(쿠바, 니카라과, 볼리비아 등), 아 · 중동 15개(케이프타운, 룩소르 등) 지역에 대한 재외국민 보호 거점이 확대되었다.

6) 위험지역 진출업체 안전대책 마련

2007년 1월 나이지리아 무장단체에 의한 대우직원 피랍사건을 계기로 외교통상부는 위험지역 진출 건설업체에 대한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 정부부처 점검단을 4회에 걸쳐 파견하였다. 정부는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업체별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고, 나이지리아 진출 건설업체 안전지원을 위해 2007년 5월 건교관 1명을 파견하였다. 또한, 사건 ·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원양어선 다수 진출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위험지역 안전점검단 파견

구 분	파견기간	점검지역
1차 점검단	2007.2.5~2.16	필리핀, 이란
2차 점검단	2007.2.21~3.7	아프카니스탄, 파키스탄
3차 점검단	2007.3.20~3.31	인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4차 점검단	2007.4.5~4.16	태국, 사우디, 알제리

7) 여권법 개정에 따른 위험지역 여행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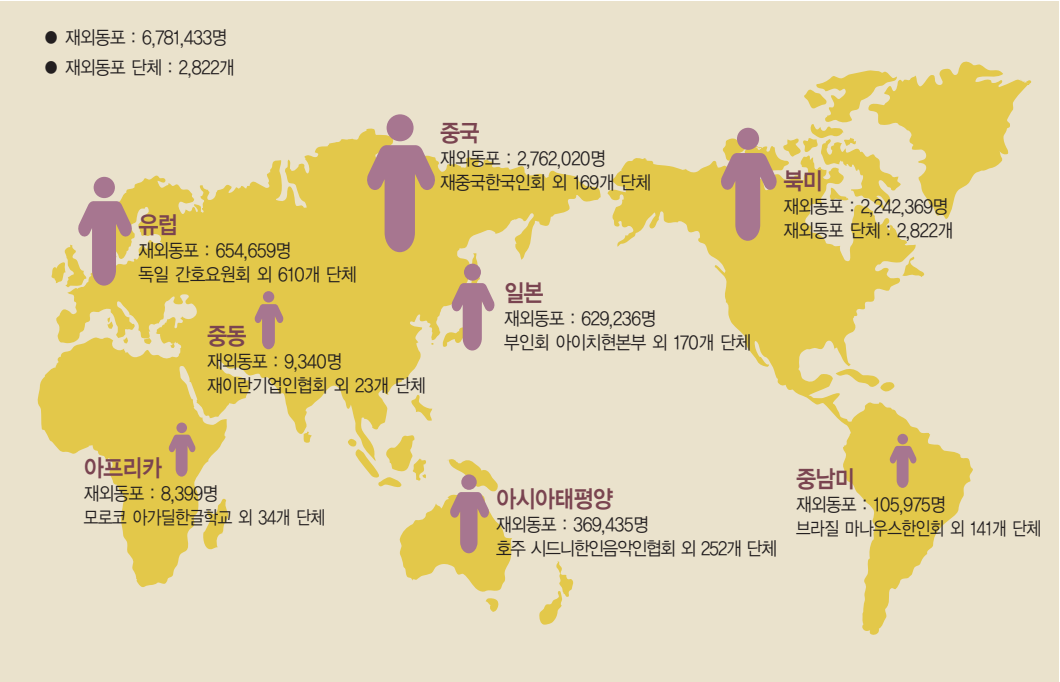
여권법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해외 위험지역 방문 또는 체류가 금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는 2007년 8월 7일(관보게재일)부터 1년간 방문 또는 체류가 금지된다. 다만, 영주, 취재 ·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활동,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 등과 관련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필요성, 안전대책 등에 대한 심의 후 예외적으로 입국 또는 체류가 허가될 수 있다.

2. 재외동포정책위원회 활성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 · 조정할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되었다. 2004년 11월, 제4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는 동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위원회 연1회 및 실무위원회 연 2회 이상 정례화하여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2006년 12월 개최된 제6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재외동포 지원사업 추진계획 등을 심의 · 확정하였으며, 재외동포를 위한 기념일 제정 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정부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각종 재외동포 관련 업무 및 재외동포 지원사업을 조율하여 재외동포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부처간 업무협의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재외동포 및 단체현황



▶ 재외동포 다수 거주국

순위	나라	인구(명)	순위	나라	인구(명)
1	중국	2,762,020	11	브라질	50,523
2	미국	2,023,653	12	영국	41,995
3	일본	629,236	13	우크라이나	33,131
4	캐나다	218,716	14	뉴질랜드	32,972
5	러시아	207,225	15	인도네시아	30,700
6	우즈베키스탄	178,070	16	독일	29,800
7	카자흐스탄	102,280	17	태국	25,000
8	호주	95,297	18	아르헨티나	21,592
9	필리핀	91,477	19	키르기즈스탄	20,900
10	베트남	53,800	20	프랑스	13,981

▶ 주요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세계 한민족 과학 기술자 네트워크 (www.kosen21.org)	세계 해외 한인 무역협회(www.okta.net)
	세계 한인 상공인 총연합(www.hansangkorea.com)
코리안넷(www.korean.net)	소상공인 네트워크(www.dure21.com)
한민족 무역 거래망(www.koreantrade.net)	한민족 글로벌 벤처네트워크(www.inke.org)
한상넷(www.hansang.net)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www.kowin.or.kr)

3. 고려인 재정착 지원

CIS지역 전역에 50여만 명의 고려인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1991년 구소련 붕괴 이후, 타지키스탄 내전 및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악화 등으로 약 5만 명이 원국적지를 이탈하여 여타 CIS지역으로 이동, 불법 또는 무국적으로 체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6년부터 'CIS지역 동포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한국어교육기회 확대, 동포 학생 유학지원 및 초청연수확대, 민족문화 정체성 유지, 현지 재외동포의 국내취업기회확대, 현지 정착활동 지원을 5대 역점과제로 선정하였다.

정부는 무국적 고려인들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2005년 하반기부터 국적취득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관련 국가들과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고려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확보를 위해 농림부와 합동으로 농업지원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4. 중국 및 러시아 · CIS 지역 거주 동포대상 방문취업제

재외동포법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는 취업 및 경제활동 등 국내 활동 전반에 대한 혜택을 부여받으나, 동포들이 단순 노무행위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재외동포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중국과 CIS지역 동포들은 사실상 재외동포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상존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중국 · CIS지역 동포들의 모국 방문 및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하여 취업관리제(2002년 12월) 및 특례고용허가제(2004년 8월)를 시행해 왔으며, 국내 연고가 없는 동포도 모국 방문 대상에 포함하여 동포들의 국내 취업 절차를 간소화한 방문취업제를 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하였다.

방문취업제는 5년간 유효하고 1회 3년간 국내 체류가 가능한 복수 사증을 발급하는 적극적인 동포 포용정책으로서 동포간 차별을 해소함과 더불어 동포들이 거주국으로 귀국한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 재외동포사회 지원

외교통상부는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재외동포사회를 지원하고 있다.

1) 재외동포재단의 주요 활동

사 업	내 용
조사연구사업	재외동포사회 실태조사 사업, 재외동포 연구기반 조성사업, 재외동포 사이버 민원실 운영 등
교류사업	재외동포사회 교류촉진 및 권익신장활동 지원, 한민족공동체 구현사업, 한인의 해외이주 기념사업, 국외입양인 초청연수 및 지원사업 등
경제사업	한상네트워크 운영, 동포 사회 경제교류 촉진
교육사업	모국어 및 민족교육 지원사업, 재외동포 장학사업, 재외동포 초청 교육연수사업, 재외동포 사이버 한국어 강좌 개발 · 운영
문화사업	한민족문화제전, 문화예술단 파견사업, 재외동포문화예술 지원사업
정보화사업	korean.net 구축 · 운영 사업, 홍보자료 발간사업, 재외동포 언론지원사업, 한국어 뉴스 세계위성망 구축사업 등

2) 재외동포사회 지원 주요 성과

제5차 세계 한상대회 개최

제5차 세계한상대회 개막식(2006.10, 부산)

한상대회는 동포기업인 상호간 및 동포기업인과 국내 기업인을 상호 연결하여 상공 · 무역 · IT · 벤처 ·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한민족 경제인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한상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프라인(Off-line)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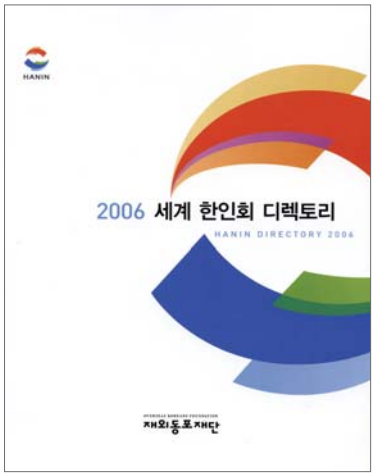
한상네트워크를 통해 동포기업인들은 다른 대륙 · 국가 · 지역의 동포기업인 상호간 시장 · 상품 · 정보교류로 시장을 확대하고, 국내기업인 네트워크와 연결을 통해 국내파트너를 확보하거나 시장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국내기업인들은 동포기업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언어장벽과 시장정보의 장벽을 극복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

2006년 10월 총 39개국 2,285명(국내 1,071명 해외 1,2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BEXCO에서 개최된 제5차 세계한상대회에서는 비즈니스 상담 6,443건(약 2억 5천 8백만불)으로 전년도 1억 8천 7백만불의 약 1.4배에 달하는 실질적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지자체 등 각급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총 303개 기업 및 단체, 367개의 부스가 참여한 기업전시회를 개최, 명실공히 동포 사회 최대 규모의 컨벤션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특히, 지역 유관행사와의 동시 개최(2006년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국내외 관련 단체간 업무협조체제 구축 유도(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와 부산시간 MOU 체결, 미주 한미 식품상총연합회와 경상북도간 MOU 체결 등), 재외동포 기업인의 능동적 참여 유도 등으로 향후 상당한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민족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DB 구축

전 세계 670만 재외동포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것을 목표로 한인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사업으로서 105개국 432개 한인회 상세한 정보를 대륙별, 국가별로 정리한 '2006 세계 한인회 디렉토리'를 발간하여 국내외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재외동포재단의 국외입양동포 지원사업 10주년 기념으로 발간된 '국외입양인 백서'는 정부의 입양정책, 입양현황, 사후관리, 지원기관 등 기본적인 정보 및 통계뿐만 아니라 500개의 입양관련 단체정보, 4,000여건이 넘는 보도내용, 학위논문, 한국어 교육정보 등이 총망라되어 있고, 국외입양인 관련 DB를 인터넷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재단 국외입양인사이트를 개설, 온라인(On-Line)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 발간 「세계 한인회 디렉토리」 표지

동포사회 지원 내실화

정부는 중국, 사할린, 중남미, CIS지역 차세대 동포 및 멕시코 이주 100주년 기념을 계기로 멕시코 한인 후손들의 거주국내에서의 안정적인 경제기반 마련과 모국과의 제반 교류강화를 위한 '재외동포 청년 직업연수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중국, 중남미, CIS지역 거주 연수생 총 252명에게 IT과정, 자동차 정비, 전기용접 등 직업 적성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교육환경이 열악한 중국 및 CIS지역의 민족학교에 IT관련 교육 기자재를 지원하고, 총 107개국 2,072개교의 재외 한글학교에 약 37억 9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아울러, 분야별 재외동포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한불수교 120주년, 간호사 독일 파견 40주년 기념 등 한인 이주기념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재외동포사회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제 2 절 인간미 넘치는 대국민 영사서비스

1. '전직원 영사화'를 위한 조직문화 수립

1) 전직원 영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실시 · 강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랑받는 정부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외교통상부는 '전직원의 영사화'를 목표로 조직문화를 혁신하는 등 영사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일일 영사교육 및 직원 토론회 실시, 직원 친절도 진단 및 친절 마인드 평가, 총영사회의 개최, 영사 직무교육 확대 등 친절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대상 영사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영사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있다.

2) 영사 혁신 사례집 발간

외교통상부는 2005년을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외교의 원년'으로 설정하여 국민 만족 영사서비스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본부와 재외공관에서 영사혁신의 실적을 망라한 「영사 혁신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본 사례집에는 제도 개선을 위해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이렇게 구축한 하드웨어를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공유에 대한 사례가 상세히 실려 있다.

2. 영사 · 민원 시스템 개선

1) 영사민원 시스템(e-Consul) 구축

외교통상부는 2004년 12월부터 재외공관 전산망과 중앙행정부처 전산망을 연계한 e-Consul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재외공관에서도 간편하고 신속하게 One-Stop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출입국기록, 신원조회, 운전면허기록 등의 행정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어 민원처리 소요시간이 1주일에서 실시간으로 대폭 단축되었다. 현재 89개 재외공관이 e-Consul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으며, 향후 전재외공관으로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2) 재외공관 민원실 설치 및 영사 · 민원 개선함 운영

외교통상부는 영사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세계 재외공관에 133개 민원실을 설치하고, 2005년 3월부터 전재외공관 민원실에 영사 · 민원 개선함을 설치하여 불평 · 불만 사항 및 개선 건의 등을 접수하고 있다. 아울러, 영사민원 서비스 헌장 재정립, 재외공관 민원운영 예규를 제정하여 민원업무 처리 표준화를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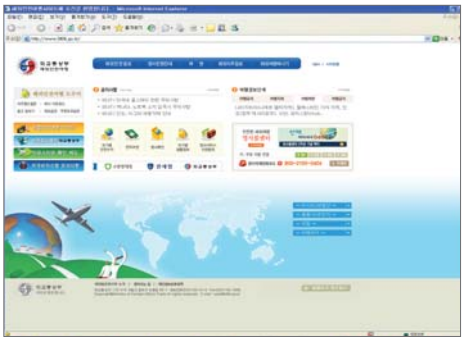
3) 인천국제공항 영사민원센터 개설

출국과정에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6개월 이하로 남았을 경우, 일정 심사를 거친 후 인천공항 영사민원센터에서 6개월 이내의 기간연장 또는 1년 유효기간의 긴급여권을 발급 받아 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 영사 · 민원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1) 해외여행 안전정보 홈페이지 개설

2004년 12월부터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를 개설하고, 해외 사건 · 사고, 해외여행, 영사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별 안전 정보, 안전 뉴스, 여행 경보 공지, 여권 정보, 영사 확인 등이 게재되어 있으며 안전상황에 따라 48개 국가(지역)의 위험 경보단계를 지정하고 있다.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2) 방송 등을 통한 해외여행 안전정보 홍보

우리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KBS 제1라디오 '지구촌 오늘'에서 매주 2회(화 · 목), YTN '해외안전여행정보'에서 매일, KBS 2TV '지구촌 뉴스'에서 매주 1회 해외여행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팜플렛, 포스터 등 안내문 제작 · 배포, 보도자료 수시제공,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안전한 해외 여행을 위한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4. 외국과 비자 면제 지속 추진

1)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추진

외교통상부는 국민 편익증진 및 한 · 미간 인적 교류확대를 위해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 가입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 미국 의회 및 행정부와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미국내 여건 조성에 힘쓰는 한편, 국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가입 요건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6년 12월 우리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한 · 미간 로드맵에 합의하였고, 부시 미 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 우리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미국 행정부 및 의회 내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되었으며 2007년 8월 3일 미국내 비자면제프로그램 현대화 법안이 확정되어 우리의 가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국내 관계부처 및 미국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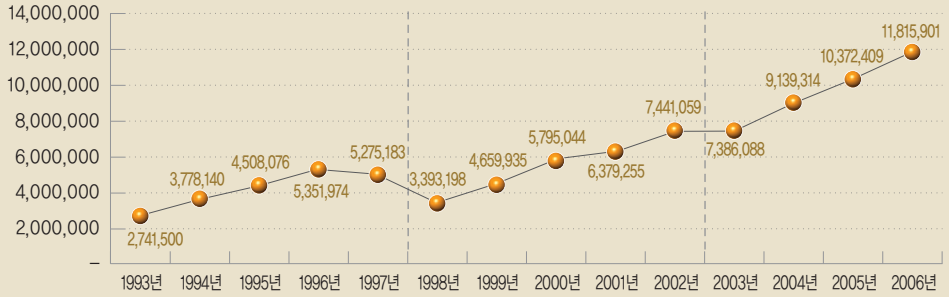
2) 외국과 비자면제협정 체결 추진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 및 여행의 편리함을 돕기 위해 외교통상부는 세계각국과 비자면제협정 체결을 완료하였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들을 발굴하여 비자면제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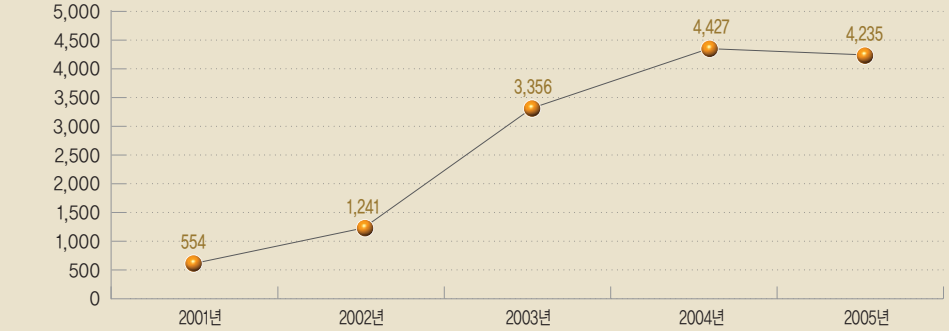
재외국민보호 및 양질의 영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민 기대 증대

해외여행자 수는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에는 1,200만명에 육박하였으며, 사건, 사고 건수가 급증하였다.

▶ 해외여행자수



▶ 해외사건사고 처리건수



현장의 목소리

안전한 해외여행 '영사콜센터'와 함께

사건 · 사고 예방…
다른 나라에서도 관심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

우리 국민의 해외 출국자 수는 매년 15% 이상 늘어 연간 1,200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크고 작은 사건이나 사고도 연간 4,000여건 이상 일어나고 있으며, 지진 · 해일이나 허리케인 같은 자연재해와 국제테러 등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해외공관의 영사인력 부족으로 위와 같은 긴급 상황과 다양해져 가는 영사민원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영사서비스 혁신 방안의 하나로 2004년 말부터 영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영사콜센터는 해외를 여행하거나 거주하는 우리국민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언제 어디서든 친절하고 신속 · 정확하게 24시간 365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고 있다.

또한 지진 · 테러 등 위험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국제로밍폰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전 정보를 제공하여 사건 ·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영사콜센터시스템은 세계 외교부 가운데 유일한 것으로 다른 나라 외교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 · 미주 · 유럽에서 확인된 영사콜센터 역할

그간 2004년 말 동남아시아 쓰나미, 2005년 미 동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그리고 런던, 발리 테러 시에 현지체류 여행자 또는 거주 교민과 연락이 안되는 국내가족들의 안타까움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영사콜센터의 역할이 입증된 바 있다. 그리고 중국 선양의 친척을 방문 중인 자녀가 희귀병으로 긴급수혈을 받도록 도와준 상담, 중국 칭다오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부친을 위한 자녀의 중국방문 상담, 배낭여행 중 프랑스 파리에서 당한 교통사고 처리 상담 등 긴급 도움을 제공한 사례도 수없이 많다.

영사콜센터 이용자 수는 한 해에 약 15만여명에 달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유학, 이민박람회장에 나가 팜플렛을 나누어 주고, 대학이나 시민단체에도 홍보자료를 보내고 있다. 특히 해외출국자에 대하여는 항공사와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의 도움으로 e-ticket에의 이용안내문 인쇄, 교육 등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언제 어디서나 현지 국제 전화코드 +800-2100-0404로 연락하면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 3 절 문화외교를 통한 국가 이미지 및 위상 제고

1. 문화외교를 통한 연성국력(soft power) 증진

외교통상부는 2006년 한해 동안 '문화외교를 통한 연성국력(soft power) 증진' 이라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문화외교 활동을 수행하였다. 연성국력 증진을 위한 금년도의 문화외교 활동은 기본적으로 '양자협력' 과 '다자협력' 의 양측면에서 상호 유기적 · 보완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양자협력은 문화협정 체결, 문화공동위원회(또는 문화국장회의) 개최, 주요 국가와의 종합적 문화교류행사 추진 등을 통하여 수행되었고, 다자협력에 있어서는 유네스코 등 문화 분야 국제기구는 물론, ASEM, APEC, ASEAN+3 등 다자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 문화와 국가 이미지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고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전통무용, 음악, 현대무용, 연극 등 한국 민간예술단체의 해외 파견, 언론인 방한 초청, 청소년 교류 등을 통해 역동적인 국가 이미지 전파에 기여하였다. 체육분야의 성과를 살펴보면,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경기에 전념하고 현지 응원단이 안전하고 즐겁게 경기를 참관할 수 있도록 재외 공관을 통해 제반 조치를 취하였으며, 2007년으로 예정된 주요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각 유치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속에 유치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등 문화 분야의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였으며, 한류를 활용한 문화 · 홍보 외교활동을 통해 문화국가로서의 이미지 전파에도 적극 노력하였다. 또한 재외공관 문화전시장화 사업을 통해 재외공관을 우수 미술품 전시공간으로 활용하여 해외에서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2. 주요 문화교류 활동

1) 문화협정 체결, 문화공동위 개최 등 정부간 협력

정부는 외국과의 문화교류협력의 제도적 기초가 되는 '문화협정' 또는 '문화교류시행계획서'를 2006년 한 해 동안 총 8건 체결[71]하였으며, 국가간 문화협력의 중심축이 되는 '문화공동위' 또는 '문화국장회의'를 총 12회 개최하였는바, 이는 전년(2005년) 대비 71%가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협의를 토대로, 외국 정부 및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우리나라 문화외교 정책을 소개하고 우리의 우수한 문화전통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킴으로써 친한 이미지를 확산 · 고양시키는 공공외교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2) 주요 국가와의 종합적 문화교류 행사의 성공적 추진

가. '한 · 일 우정의 해' 및 '한 · 중 교류의 해' 행사의 성공적 추진

2006년은 동북아시아 지역 문화교류의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한 해였다. 한 · 중 · 일 3국은 동북아시아 지역 국민들간 문화적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와 친선 증진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토양이 된다는 공통의 인식하에 각종 문화교류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특히 외교적 계기를 활용한 양자간 종합적인 문화교류 행사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일본과는 지난 2005년도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던 '한 · 일 우정의 해' 행사가 양국 국민들간에 우호와 협력의 분위기를 계속 확산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Post 한 · 일 우정의 해' 행사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한 · 일 우정의 해'의 약 700여개 행사중 가장 성공적 행사로 평가되었던 거리축제 행사가 2006년 9월 23일에서 24일간 서울 대학로에서 '한 · 일 축제 한마당 2006' 행사로 이어졌으며, 한 · 일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주역인 양국 청소년들간의 우의를 다지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71) 캄보디아, 세르비아, 아제르바이잔 총 3개국과 문화협정 체결, 우즈베키스탄, 페루, 브라질, 불가리아, 이스라엘 등 총 5개국과 문화교류시행계획서 체결

한 · 중 교류의 해 홍보대사(2006.12.15, 서울)

중국과는 한 · 중 수교 15주년이 되는 2007년을 '한 · 중 교류의 해' 로 지정하고, 2006년 한 해 동안 양국 정부간 공식협의 채널을 통해 공연, 미술, 교육, 체육 등 거의 모든 분야의 다채로운 문화교류 행사를 준비해 나갔다. 한 · 중 양국 정부는 '한 · 중 교류의 해' 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개막식(4월), 폐막식(12월) 등 약 100여개 이상의 각종 정부 주최 또는 후원행사를 기획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는 민간부문이 교류의 해 행사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민간차원의 사업들도 '한 · 중 교류의 해' 행사로 적극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한 · 중 교류의 해' 가 양국 국민들간의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였다.

나. '한 · 불 수교 120주년' 기념행사

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2006년 한 · 불 수교 12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확대 · 발전시키는 취지에서 '한 · 불 수교 12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 · 불 양국은 각각 "한국을 가슴속으로"(Corée au Coeur), "프랑스, 아자!" 를 부제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한 · 불 수교 120주년을 기념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루브르 박물관전을 관람하는 관객들(2006.10.24, 서울)

우리측은 황병기 가야금 공연(2월 27일~28일, 3월 3일), 국립무용단 'Korea Fantasy' (6월 8일) 및 조수미 콘서트(12월 12일)등 100여건의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프랑스인들에게 수준 높은 우리문화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특히 동 행사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에까지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많은 행사에 양국 주요 문화예술기관이 공동참여, 기획 · 제작하여 실질적인 쌍방향 문화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한 동 행사 추진과정에서 프랑스 언론들은 '한 · 불수교 12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더불어 중국, 일본과 차별화되는 우리문화의 독특성에 주목, 전통공연, 무용, 패션, 영화 등 다양한 장르에 걸친 심도 있는 비평기사를 실었다.

프랑스측도 주한프랑스문화원을 중심으로 웹사이트(www.france.or.kr)를 개설해 루브르박물관 걸작선 및 리옹 국립발레단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쌍방향 교류를 통해 양국간 우호협력관계 증진 및 상호이해가 제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한 · 영 상호 방문의 해' 행사

1883년 한 · 영 수교 이래 한국의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하였으며 동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방문성과 제고 및 한 · 영간의 상호이해 증진을 더욱 심화하기 위해 '한 · 영 상호방문의 해'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2006년도에 영국 내에서 'Think Korea 2006'을 개최하고, 영국은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Think UK 2007'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006 한 · 영 상호방문의 해 개막식(2006.2.23, 런던)

특히 'Think Korea 2006'은 인적교류의 증진, 경제설명회 개최, 영화상영, 예술공연 등을 통해 전통 및 현대 한국문화를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영국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음악, 무용, 영화 등 예술과 문화를 보다 집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72]

72) 마샬 아트(martial art) '점프'(2.6~2.28)는 20회 공연을 실시하여 약 8,000명의 영국인들이 동 공연을 관람하였으며, 이외에도 장영주 바이올린 콘서트(7.2), 한국 영화제 2006(9.27~10.1)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되었다.

'한 · 영 상호방문의 해' 행사에 대한 영국언론의 관심도 높아서 2006년 동안 한국의 문화 분야 보도건수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문화 분야 기사는 2005년 5건에 비해 2006년 28건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기사 중 문화 관련 기사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5년 1%에서 2006년에는 3%로 증가하였다. 특히 영국 유력 일간지 The Times는 10월 18일자에서 12개면에 걸친 대대적 한국 특집 기사를 내보냈는데, 동 특집기사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하였다.

라. '한 · 터키 수교50주년' 기념행사 준비

2005년 4월 한 · 터키 정상회담에서 양국 수교 50주년이 되는 2007년을 '한 · 터키 우정의 해'로 선포하고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9월 14일 한 · 터키 외교부 문화국장회의를 개최해 개막식, 로고, 비용문제 등 수교 기념행사의 제반사항을 협의하였으며, 2007년 3월 8일 국립국악원의 전통공연(앙카라, 이스탄불) 및 3월 9일 국제교류재단 지원으로 MIK 클래식 공연(앙카라)을 개막공연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또한 우리정부는 2007년 영화제, 미술전, 패션 교류전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터키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형제의 나라' 터키에 우리의 우수한 문화가 널리 소개되길 기대한다.

3) 민간 예술공연단체 해외 공연 지원

정부는 '한 · 불 수교 120주년', 베트남 APEC 정상회의, 핀란드 ASEM 정상회의 등 주요 외교행사를 측면 지원하고, 한국문화주간 등 재외공관의 문화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계 44개국에 총 24개 민간 예술공연단체를 파견하였다.

공연작품 및 단체는 사전조사를 통해 파견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장르별 선호도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계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연예술자문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단체 선정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기하고 있다.

해외공연에는 현지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부 고위인사, 경제계, 언론계 및 문화계 인사들이 초청되어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널리 홍보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현지 공관 관계자 및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연 사후평가를 통해 지역별 문화적 수요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반영, 향후 실시하는 공연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4) 체육교류를 통한 문화교류 활성화

국가간 관계가 발전하고, 문화교류가 활성화 됨에 따라 국가간의 체육교류 중요성도 급격히 증대하기 시작했다. 여러 문화 교류 활동 가운데서도 체육 협력은 선진국이 후진국의 반감을 일으키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 사업이다.

체육은 또한 우리나라를 세계 속에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한 여러 국제대회는 한국의 존재를 알리고, 한국의 역동적 이미지를 세계에 확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일례로 1988년 서울올림픽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2002년 월드컵을 통해 우리 국민의 열정과 질서의식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었다.

독일 월드컵 참가 지원

2006년 독일 월드컵은 2002년의 뜨거운 함성과 가슴을 되살리는 좋은 촉매제가 되었다. 외교통상부는 전 세계의 축제인 월드컵에서 우리팀이 좋은 성적을 내는데 일조하기 위해 축구대표팀의 동계 전지훈련(1월 15일~2월 24일)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협조를 아끼지 않았으며, 주독일대사관을 중심으로 '월드컵준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문제, 축구협회 및 응원단 지원, 티켓확보 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 대표팀의 분전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16강 달성을 이루지 못했지만, 독일 월드컵은 월드컵 원정경기사상 처음으로 일승을 거두고, 축구강국 프랑스와 무승부의 경기를 펼치는 등 한국 축구의 성과와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독일 월드컵 현지 응원을 통해, 현지동포들과 원정 응원단, 선수단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한마당을 만들 수 있었다.

국제 대회 유치 활동 지원

우리가 이미 경험하였듯이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국제대회 유치는 자국의 위상을 높이고 아울러 경제적 파생효과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외교통상부는 2011년 대구 육상경기대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재외공관과 함께 각 유치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속에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외교통상부는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의 활동을 재외공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2007년 3월 케냐 뭄바사에서 개최된 세계육상연맹 집행이사회에서 대구가 브리즈번(호주), 모스크바(러시아)를 제치고 2011년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선정되는 데 기여하였다.[73] 또한, 인천이 2014년 아시안게임의 개최지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인천 아시안게임 유치위원회와의 공조 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인천이 2007년 4월 쿠웨이트에서 개최된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OCA: Olympic Council of Asia)에서 뉴델리(인도)를 이기고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2014년 동계올림픽을 평창에 유치하기 위해 자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와 밀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개최지가 결정되는 제119차 과테말라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국제 올림픽 위원회)총회에 유치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동 IOC 총회에서 평창은 2차 결선투표까지 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치(러시아)에 4표 차로 아쉽게 패배,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하였다.

태권도 시범단 파견 활동

태권도는 국제무대에서 가장 많은 호응을 받는 한국의 문화상품 중 하나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인 태권도의 홍보 및 보급을 위해 대한 태권도협회와 협력하에 태권도 시범단을 2006년 5월 11일~24일간 영국, 노르웨이, 프랑스 등 유럽 3개국에 파견하였고, 11월 15일~28일간 에콰도르, 멕시코 등 중남미 2개국에 파견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진행하였다. 금년 태권도 사업성과를 지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2007년에는 미국 등 미주대륙 및 중앙아시아에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하는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 일정 및 방안을 협의중이다.

5) 인적 교류의 활성화

정부는 개도국 주요 언론기관의 유력 언론인들을 방한 초청하여 우리의 발전상 소개 및 각종 유무상 협력사업을 홍보함으로써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언론인 초청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73) 모스크바(러시아)는 2013년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2006년도에 페루, 아르헨티나, 그리스, 카타르, 탄자니아, 가나 등 6개국 6명의 언론인을 초청한 것을 비롯, 2007년도 상반기에는 캄보디아, 크로아티아, 남아공, 우크라이나, 에콰도르, 피지 등 6개국 6명의 언론인을 방한 초청하였다. 언론인들은 5박6일간의 방한기간중에 정부부처의 주요인사, 언론사 간부 등과 면담하였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언론재단 등의 공공기관, 통일전망대, 첨단산업시설 및 주요 문화유적지를 방문하였으며, 우리의 Dynamic Korea를 홍보하는 자료와 구두설명 등을 제공받았다. 이들 언론인들은 귀국 후 각기 소속 언론사에의 기고, 언론계 인사 및 유력인사들과의 회의 등 계기에 우리의 국가이미지를 호의적으로 설명하는 등 소속국가 내에서의 친한 기반을 공고히 하고, 홍보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국제 청소년 교류사업'을 통해 타국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우리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년 상반기중 ASEAN 회원국 10개국과의 대학생 교류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74], 매년 하반기에는 '한 · 일 대학생 교류사업'을 통해 양국 30명의 학생들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 · 중 공무원 교류사업'을 시행하여 양국 공무원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6) 문화 관련 다자논의 적극 참여

2005년 10월 20일 유네스코 제33차 총회에서 채택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이 3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비준되어 2007년 3월 18일 발효하게 되었다. 동 협약은 문화 다양성 보호를 위한 최초의 국제규범이라는 데에 그 의의와 중요성이 있으며, 우리정부는 관계 부처간 협의 등 동 협약의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앞으로 동 협약 당사국은 총회 개최, 정부간 위원회 구성을 통해 협약 이행의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정부는 이러한 논의 동향을 예의주시해 나갈 예정이다.

74) 2005년도 한-ASEAN 청소년 교류사업에서는 54명의 우리 대학생들이 2조로 나뉘어 각각 싱가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및 미얀마, 태국을 방문하였으며, 뒤이어 122명의 ASEAN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초청되었다. 2006년도 사업을 통해서는 54명의 우리 대학생들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베트남을 방문하였으며, 97명의 ASEAN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초청되었다. 2007년의 경우, 70명의 ASEAN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초청되었고, 21명의 우리 대학생들이 필리핀, 싱가포르를 방문하였다.

한편 무형유산보호협약[75]이 2006년 4월 20일 발효함으로써 사라져가는 무형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이 강화되었다. 동 협약 당사국은 2006년 6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당사국 총회를 개최, 총 24개국의 정부간위원회를 선출하였다. 우리 정부는 2006년 11월 18일부터 19일간 알제리에서 개최된 제1차 정부간위원회에 옵저버로 참석하여 자문기구 선정, 무형유산등재 기준 등 무형유산 보호분야의 국제적 논의동향을 파악하고, 특히 아 · 태지역 무형유산분야에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우리정부는 지난 제15차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2005년)시 각국의 문화 및 자연유산을 심의하여 탁월한 가치를 지닌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는 역할을 하는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 위원국으로 당선된 이후, 2006년 7월 8일~16일간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된 제30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위원국으로서 세계유산 등재,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보호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외에도 2006년 7월 19일~21일간 개최된 유네스코 '제2차 세계대전시 이전된 문화재 반환 관련 원칙 선언 성안을 위한 정부간 위원회'에 참석하여 문화재 피탈국으로서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2006년 10월에는 제주도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실사단의 현지조사가 시행되었으며 이 결과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2007년 6월 27일)에서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Natural Heritage)으로 등재되는데 성공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정부는 다자무대에서 문화외교의 지평을 넓히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중견국가로서 활동적인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75) 우리나라 2005년 2월9일 가입

문화관련 협약 및 국제기구

■ 문화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 문화적 획일화에 대항하여 각국에 존재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당사국이 취할 조치 등을 규정한 국제협약으로 2005년 10월 20일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2007년 3월 18일 발효
• 2007년 6월 최초 당사국 총회 개최, 24개국 정부간 위원회 구성 예정

■ 무형유산보호협약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인류무형유산대표목록 및 긴급보호필요무형유산 목록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3년 10월 17일 채택, 2006년 4월 20일 발효
• 2006년 두차례 총회를 개최, 24개국 정부간 위원회 기구성

■ 세계유산위원회
(World Heritage Committee)
● 각국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심의하여 뛰어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인정되는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는 정부간 위원회 회의
• 총 2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창덕궁, 수원화성 등 7개 문화유산도 동 위원회에서 등재가 결정되었음.

7) 한류를 활용한 한국문화 홍보

우리 정부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를 통해 한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 경주하였다. 특히 전략적 차원에서 한류 중심지인 동아시아지역 14개국 재외공관에 설치된 '한류지원협의체'는 현지에서의 한류 홍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한류 전략 및 문화 컨텐츠 개발, 한류스타 공연 지원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영화, 드라마 등 영상매체를 통해 한국에 대한 해외소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대표적인 한류 영상물로 폭발적 인기를 누린 드라마 '대장금'에 출연했던 한류스타들을 2006년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 브루나이, 싱가포르, 캄보디아 등에 파견하였다. 지난 2004년 '한 · ASEAN 대화관계 수립 15주년 기념사업'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류스타 파견 사업은 ASEAN 국가 일반 국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으면서 아시아 지역내에서 친한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한류가 일시적 유행이나 일방적인 문화전파가 아닌 우리 문화와 외국 문화간의 호혜적 문화교류의 형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외국의 우수한 문화를 국내에 소개하는 쌍방향성 문화교류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6년 9월에 ASEAN 10개국 및 한 · 중 · 일 3국의 문화예술을 우리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동아시아 영화교류전(9월 14일~17일, 서울 및 창원)과 동아시아 공연예술제(9월 19일~22일, 서울)가 각각 개최되었다. 이 행사들은 동아시아지역 국가간 최초의 종합적 문화교류 행사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문화교류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친선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새롭고 창의적인 시도로 높이 평가받았다. 2007년 12월에는 아프리카 문화를 우리국민에게 소개하는 '아프리카 문화축전' 을 개최할 예정이다.

현장의 목소리

동아시아 국가간 문화적 징검다리를 놓자

구본우 문화외교국장 2006.9.27
국정브리핑 기고문 중에서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한국에서 처음 열렸던 동아시아주간이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동아시아 주간은 2005년 12월에 있었던 'ASEAN+3(한 · 중 · 일) 정상회의' 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동아시아 국민간 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제안국이 되어 외교부 주최로 '동아시아 영화교류전', '동아시아 공연예술제' 행사를 개최했다. 동아시아 영화교류전의 경우 12개국에서 출품된 영화가 상영되었는데 중국, 일본, 태국 영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내에서 최초로 개봉되는 것이었다.

이번 영화교류전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동아시아 국가의 영화들을 한자리에 모았다는 점에서 많은 영화팬은 물론 국내 거주 동남아 출신 외국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동아시아 공연예술제의 경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공연과 한국의 브레이크 댄스그룹의 공연이 있었다. 사실 행사 준비 초기에는 자극적인 의상과 빠른 비트 음악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동아시아 국가의 전통공연에 호응을 보일 지에 대해 의구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막상 공연 당일날 보니 놀랍게도 참석자 중에서 대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이 뒤를 이었다. 공연의 내용도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필자가 본 각국의 어떤 공연단에 뒤지지 않았으며 풍부한 얼굴표정과 손짓, 박진감 넘치는 공연전개로 공연 내내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다.

당초 '동아시아 주간' 은 지리적인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교류가 비교적 소원했던 동아시아 국민들이 서로 친해지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하고자 만들어 졌다. 디딤돌은 대개 하나의 돌로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돌들이 모여 강의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 강의 양쪽 사람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주간도 한국이 놓은 디딤돌 하나로 그치는 게 아니라 향후 동아시아 각국이 놓은 각각의 디딤돌로 이어져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소망한다.

8) 재외공관 문화전시장화 사업

정부는 재외공관 청사 및 관저가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 재외공관을 우리나라의 우수 미술품 전시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예술 작품을 소개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6년에는 노르웨이, 아일랜드, 요르단, 선양 등 15개 공관에 120점의 작품이 지원된 상태이며, 이들 미술작품들은 지원 공관에 대한 미술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사전 조사 및 사후 관리를 거쳐 상시 전시됨으로써 해외에서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촉진 ·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금년에는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사이버아트갤러리'를 구축하여 재외공관이 소장하고 있는 우수 미술품을 우리국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9) 외교사료관 개관

주요 외교기록물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착공된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Diplomatic Archives)이 2년여의 공사 끝에 완공되어 2006년 4월 27일자로 개관하였다.

개관식 사진(2006.4.27,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사료관은 서울 서초구 외교안보연구원 경내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1876년 개항 이후 현재까지의 시대별 외교사료와 외교용품 등을 전시한 150평 규모의 '외교사전시실'과 생산 후 30년이 지나 일반에 공개되는 외교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외교문서 열람실'도 설치되었다.

전시실과 열람실은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외교사와 국제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학계의 외교사 연구를 지원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4 절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한 국민과의 대화 확대

1. 대국민 접촉활동(Public Outreach)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외교' 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일방통행식 '닫힌'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신속 유용하고 적실성 있는 정보제공을 통한 '알권리' 충족과 국민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쌍방향으로 열린' 접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는 단기적이고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에서 탈피하여 국민들과의 벽을 허무는 개방적 자세로 쌍방향 의사소통(오프라인 대국민 직접대화 활동 및 온라인 대국민 간접홍보 활동)을 확대하는 등 '국민 참여 열린 외교' 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오프라인 대국민 직접대화 활동은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 각종 온라인 홍보 활동의 익명성을 극복하고, 타켓 그룹별로 맞춤형 쌍방향 의사소통을 가능케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친밀감을 제고하고 현장감을 통한 정책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또한 온라인 대국민 간접홍보 활동은 확산성과 적시성이 높은 기존 온라인 채널을 활용함으로써 광범위한 국내 IT 기반 정책환경에 최대한 부응하고, 저비용으로 다수의 국민에게 주요 외교 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다.

외교통상부 견학 프로그램 참석자들(2006.4.21, 서울)

구체적으로는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순회 강연회, 외교부 견학 프로그램, 지방 중 · 고교 방문, 대학생 특별강연 행사 등 국민과의 직접대화(outreach)를 확대 시행하였다.

첫째, 주요 외교사안과 관련된 상세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국민 여론 수렴의 창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책고객 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PIMS[76])을 도입하여 고객 DB 관리 및 뉴스레터/정책메일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120여명의 사이버 모니터단(Cywatch)를 위촉, 본부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e-세상'(www.e-world.go.kr) 등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되는 주요 외교사안들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제보하는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둘째, 2006년 한해 24개 도시에서 총 52회의 지방순회 강연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의 외교정책에 대한 제안과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외교통상부와 국민 간의 지속적인 쌍방향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외교통상부는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통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요 외교사안과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는 2006년도에 외교통상부가 실시한 다양한 온 ·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수렴된 국민 여론을 정책입안 및 집행과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외교 사이버 모니터단' 활동의 지속적 · 효율적 지원 · 관리 및 온라인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2006년 지방순회 외교정책 강연회 개최도시

76) Policy-customer-relationship-management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2006년도 국민 참여 열린외교 활동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활동 개요
외교부 견학 프로그램 강화	• 2003년 8월부터 매월 1회 일반인의 신청을 받아 실시 – 일반인 뿐 아니라, 어린이날 행사 및 대학생 특강 등 견학프로그램 참여 수요 충족 – 외교통상부 현황 소개, 업무현장 방문, 외교관과의 대화 등 프로그램 실시 • 2006년도 15회에 걸쳐 약 1,200여명 참석
지방 중 · 고교 방문 행사	• 2006년 한해 지방의 15개 고교를 방문하여 영상홍보물 상영, 강연 및 외교관과의 대화 등 프로그램 실시 • 해당 중 · 고교 출신 간부 또는 직원들의 참여 장려
지방순회 강연회	• 2006년 중 24개 도시에서 총 52회 강연회, 간담회 등 개최 ※ 2005년 대비(22개 지역, 32회) 20회 증가 •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한 설명 및 의견 수렴 위주의 프로그램
홈페이지 운영	• '핫이슈' 코너를 생성, 주요 현안에 대한 대국민 온라인 홍보 강화 – '독도' 의 경우, 핫이슈 상설 팝업 생성, 관련 정보 및 사이트 연결 제공 (본부 및 전재외공관 홈페이지)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내 민원게시판을 '참여마당 신문고' 로 일원화 • 재외공관 홈페이지 주재국어 서비스 제공 (파라과이, 후쿠오카 공관 홈페이지)

2. 해외정보공유망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이 수집하는 유용한 정보를 중앙부처 공무원이 보다 용이하게 공유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05년 7월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해외정보공유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0월~11월간 시험운영을 거쳐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2006년 12월 현재 63개 재외공관과 64개 중앙부처가 연결되어 있다.

해외정보공유망은 국내외 근무 공무원을 실시간 연결하는 최초의 네트워크로서 2006년 12월 현재 재외공관이 수집한 외교안보, 경제 · 통상, 해외혁신, 독도 등 16개 분야 5,600여 해외정보가 등재되어 있으며, 국내 근무 공무원들은 '해외정보공유망' 을 통해 재외공관에서 실시간 등재하는 해외정보를 열람하고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